

#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담화 개념의 위상

김종현\*

## <차 례>

- I. 머리말
- II. 담화 개념 펼쳐보기
- III.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담화
- IV. 맥락에 놓인 언어로서의 담화
- V. 대안적 정의
- VI. 맺음말

## I. 머리말

담화(discourse)라는 용어는 국어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어로 정착되고 있다. 본래 그것은 문법 영역에서부터 등장했지만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담화’는 넓은 범위의 용어로 외연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개념으로서의 담화와 명칭으로서의 담화가 함께 쓰이다 보니 담화의 작용역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국어과 영역에 따라 담화가 뜻하는 바를 개별적으로 맥락화 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났다. 이러한 개념 생태로부터 생겨난 연구 논제로서, 담화 개념에 대해 이제는 국어과 영역 간에 통합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논거를 파악해 볼 때도 되었다. 담화의 내용 체계를 구체화하고 상세화하기에 앞서 담화란 무엇

---

\*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인지에 관한 개념적 토대는 검토하고 지나가야 하겠기에, 이 논제를 가지고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출발점이 되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다. 담화는, (1) 언어 단위인가? 아니면 (2) 언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가? 아니면 (3) 언어 행위 그 자체인가? 이 세 가지는 담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거쳐야 할 원론적 수준의 질문이다. 단위로서의 담화, 관점으로서의 담화, 행위로서의 담화, 이 세 가지 중에서 국어과에서는 단위로서의 담화 및 행위로서의 담화에 더 주목한다. 교육과정에는 언어학적 담화분석의 방법론이 들어설 구석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점으로서의 담화에까지 깊숙하게 눈길을 돌릴 형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담화는 개념을 담은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말’을 뜻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담화가 뜻하는 바가 국어과 전반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은 아니다. 담화는 곧잘 다른 명칭으로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의 수준에서 사용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담화를 그 자체의 속성만 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담화 개념은 본래부터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환원해서 풀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교육과정에서 담화 용어의 뜻이 일정치 않은 것은 담화 자체의 다의성만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담화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토대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포함되는 담화론적 지식이나 기능의 윤곽을 판단하는 척도를 얻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토대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글의 진행 순서를 짧게 적어 두겠다. 2절에서는 담화 개념의 여러 정의들을 비롯해 이 글에서 새로 도입하는 대안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소개한다. 3절에서는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담화 관련 어구를 돌아보고 담화 정의의 두 가지 측면을 대비한다. 4절에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담화 개념과 맥락의 대응 관계를 들여다본다. 5절에서는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라는 대안적 정의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

한다. 이 정의가 국어과에서 취급하는 담화 개념의 미시적 특성과 거시적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II. 담화 개념 펼쳐보기

담화란 일종의 언어적 단위라고 말하는 데에 그치더라도 틀린 정의의 아니다. 그것은 문법 분야에서 명백하게 알려진 정의다. 그렇지만 담화에는 단위로만 묶어둘 수 없는 상위적 가치 체계가 연결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언어적 단위의 구분이 기호 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언어적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비로소 담화 개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담화는 여러 학문 분야 사이에 교섭을 통해 발전되어 나온 방법론이기도 하고 관점이기도 하다. 그만큼 다양한 관점들이 담화 용어를 적법화시키기 위해 개입한다. 담화 용어는 다양한 범위의 현상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므로 개념 정의도 여러 가지로 성립한다. 언어학 문헌에 등장하는 담화 정의를 최소한으로 간추려 보면 아래 (1)부터 (4)까지를 들 수 있다.<sup>1)</sup>

- 1) 익명의 심사위원은 정의마다의 대표 연구자나 저작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밝혀볼 것을 지정한 바 있다. (정의 1)은 Stubbs(1983)이며, (정의 2)는 Brown과 Yule(1983)에서임을 적어 두기는 했다. (정의 3)과 (정의 4)에 관한 대표적 문헌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오히려 (정의 1)부터 (정의 4)까지는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의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 정의들은 특정한 연구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입안되었다기보다는 화용론과 담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의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담화가 언어학에 등장한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정의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나 출전을 거명하는 일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언어학의 각론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단위로서 담화론이 등장했으며, 생성주의 언어학에 맞서는 기능주의적 언어관이 등장한 이후 담화 연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문장 단위 이상, 언어사용, 맥락, 상호작용 등의 개념어들은 언어학 문헌에서 이미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위해 담화 개념을 정돈하는 자리에 와서까지 이들에 대한 출전을 새삼스럽게 밝힌다는 것은 어색하고 때늦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필자는 하고 있다. 다만 일례를 들어보건대, Schiffrin(1994 :

(정의 1) 담화는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언어이다.

(정의 2) 담화는 ‘언어사용’이다.

(정의 3) 담화는 ‘맥락에 놓인 언어’이다.

(정의 4) 담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되는 언어이다.

(정의 1)은 문법 연구를 위해 가장 명백한 정의다.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언어적 단위를 담화라고 구분한다(Stubbs 1983). ‘문장 단위 이상’(beyond the sentence)의 언어라고 함은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언어 자료다. 문장 경계 내의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던 전통적 문법 연구에 비해, 문장 경계 이상의 더 넓은 분석 단위를 고려하기 위해 (정의 1)이 필요하다.

(정의 2)처럼 ‘언어가 사용된다’(Brown과 Yule 1983)는 것은 언어가 사회적 상징에 연결되어야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추상적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관심을 둔다. 미시적 화용론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서 발화 개념을 받아들인다. 발화의 사용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발화 형식과 의미 기능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목한다.<sup>2)</sup>

(정의 3)은 맥락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의다. 맥락이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함께 끌어들이는 것이다. 언어가 맥락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곧 언어가 사용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의 3)은 (정의 2)와 서로 접면을 공유한다.

---

23-43)에서는 각 정의가 등장하는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 나타난 출전 인용은 그때까지 많이 읽히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정의 1)부터 (정의 4)까지 처음 등장한 출전을 세밀하게 언급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단행본 서적을 권하는 것이 의미 있다. 담화 관련 개설서들은 담화분석, 담화구조, 담화 개념 등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문 단계의 소개를 담고 있다. Paltridge, Cameron, Thornbury, Cutting, Hewings, Celce-Murcia 등의 저자들이 펴낸 개설서가 좋으며, 화용론과 담화에 관한 입문으로 김종현(2009, 8장)을 권하고 싶다.

2) Celce-Murcia & Olshstein(2000)은 형식적 정의(문장 이상의 일관성 갖춘 단위)와 기능적 정의(사용되는 언어)를 절충하는 것이 언어교육을 위해 가치 있다고 보았다.

(정의 4)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sup>3)</sup>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정하고 협약을 일구어 나가면서 언어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다. 사회적 상징에 있어 상호작용과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고자 할 때 주목하는 정의다.

지금까지 네 가지 정의를 들어 보았다. 이제부터는 언어의 거시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정의를 살펴보겠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인식하며,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담화의 본질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눈길을 돌려, 밋밋하지만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다음처럼 말해 볼 수 있다.

**(정의 5)** 담화는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이 정의는 담화를 통해 세상을 내다보려는 시각을 취하려 할 때 성립한다. 언어적 요소와 사회적 삶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넓은 범위의 복합체를 담화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서 보면 담화는 연속적으로 서로 연결된 언어 행위의 복합적 덩어리이다.<sup>4)</sup>

다음으로 새로운 정의를 몇 가지 더해 보겠다. 이 정의들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거는 뒤에 이어지는 절들에서 드러나기로 하겠다. 그에 앞서 우선 여기에서는 정의 자체만을 보여주고 지나가기로 하겠다.

**(정의 6)** 담화는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이다.

3) (정의 4)에서 ‘상호작용’이란 보편적 키워드에 결부되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정의를 통념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 사회언어학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전통적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변이 현상 연구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Gumperz 이후 발전한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은 담화의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맥락적 단서의 역할과 기능에 특별히 주목했다.

4) Foucault(1972 : 42)에 의하면, 담화란 사람들이 말하려는 대상을 두고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실천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상호작용하고 글을 적고 행동하는 방식들을 지배하는 사회적, 이념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여기 (정의 6)은 앞의 (정의 2)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언어학 내부의 정의라기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의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사용으로 보는 정도를 넘어,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적 혹은 개별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는 것이다. 이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 하면 아래처럼 고쳐서 나타낼 수 있다.

**(정의 7)** 담화란 담화 공동체에서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이다.<sup>5)</sup>

이 정의는 장르 구별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담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담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해 줌에 의해 그곳에서 사용되는 담화 유형도 아울러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매체 담화, 전자 담화, 학교 담화, 일터 담화, 법률 담화 등을 기술적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sup>6)</sup>

또 다른 정의를 아래처럼 도입하겠다. 이것은 담화의 속성을 ‘연결체’라는 개념어에 담아서 드러낸 것이다. 서로 연결된 언어가 곧 담화라고 규정하고자 할 때, 연결된 언어라는 것은 말 또는 글의 현존하는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목해 ‘연결체’라고 정의할 만하다.<sup>7)</sup>

**(정의 8)** 담화는 언어적 연결체(sequenc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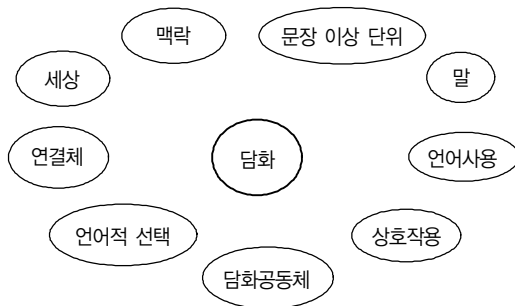
- 
- 5) 이 정의는 필자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은 아니다. Martin & Rose(2003)의 정의를 참조해서 진술해 본 것이다. (discourse = the ways in which language is actually used by particular communities of people, in particular contexts, for particular purposes.) 담화 공동체(discourse community)의 개념적 특징에 관해 정리한 문헌으로는 Swales(1990 : 24-27)가 있다.
  - 6) 학교 담화란 언어가 학교 공동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매체 담화란 언어가 매체를 통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교실 담화란 언어가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을 뜻한다.
  - 7) 연결체라는 용어는 연결 관계, 연결어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문법 교과서에서 연결 관계 및 연결어, 이 두 개의 용어가 문장 단위 이상 담화의 측면에서 등장한 것에 비하면, 연결체는 문장 단위 이상은 물론이고 더 넓은 범위의 상황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서 표현하고 이해되는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정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정의 9)** 담화는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언어적 선택’이라는 개념은 담화 현상의 저변에 흐르는 일반화 된 개념어로 수용할 수 있다.<sup>8)</sup> ‘언어적 선택’이 ‘연결체’ 개념어와 함께함에 의해 담화 개념을 구성한다는 데에 필자는 주목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뒤의 5절에서 취급하기로 하겠다.

이제까지 (정의 1)부터 (정의 9)에 이르기까지 등장했던 중요 어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그려 보았다. 여기에서 보듯이 담화는 여러 가지 언어적, 사회적 개념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위치에 자리한다.



담화 개념은 그 자체로 단일한 정의에 의해 완결되기 어렵다. 표현과 이해의 매개물이나 현상으로서 담화를 보려고 하면 담화를 구성하는 요인이나 요소를 거론하게 된다. 우리는 담화를 단지 제약하기 힘든 맛있는 언어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람들은 담화를 매개체로 해서 언어와 언어 사이, 혹은 언어와 세상 사이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고 이해한다. 여기에서 담화는 무언가를 위해 기능하며 외부 세계의 무언가와 마주서는 것을 내재적 특성으로 지닌다.

8) Woofitt(2005)가 언급하듯이, 우리가 세계 내의 장소, 사물, 사건, 상황 등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이를 위해 가능한 단어나 구절에 관해서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 Ⅲ.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담화

#### 1. 교육과정의 담화 관련 어구

국어과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담화 관련 내심어구(endo-centric phrase)를 추출해서 읽어보면 담화가 국어과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까지는 문법 영역에서만 담화 개념을 언급했다. 7차에 나오는 담화 관련 어구는 아래에 적은 것처럼 단출했다.

| 7차 교육과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화의 표현 및 이해</li> <li>• 담화의 구조</li> <li>• 음운-단어-문장-담화</li> </ul> |

표현, 이해, 구조 등의 용어가 담화와 함께하기는 했지만, 문법 영역에 한정해서 문장 단위 이상의 담화 단위를 세우는 데에 머물렀다. 음운에서 담화에 이르는 문법 단위의 구별에서 담화는 가장 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응집성, 통일성의 하위 유형들이 문법 교과서 단원에서 상세화 되었다. 문장 단위 이상에서 연결어(지시어, 접속어, 성분 생략 등)에 의한 연결 관계를 위주로 한다(김종현 2012 참조).

다음으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담화 용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 2007 교육과정에서 담화 용어는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7차까지는 단위로서의 담화에 한정했던 것에 비해 2007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행위로서의 담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7 교육과정 및 2011 교육과정에서 고시하는 담화 관련 내심어구를 각각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어구들은 담화 용어에 내재하거나 관련되는 요인 또는 요소들을 언급해 준다.

| 2007 교육과정 9)                                                                                                                                                                                                                                                                           | 2011 교육과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화의 수준과 범위</li> <li>• 담화와 글</li> <li>• 담화의 종류</li> <li>• 담화의 의미</li> <li>• 담화의 표현 원리</li> <li>• 음운-단어-문장-담화</li> <li>• 효과적인 담화 구성<sup>10)</sup></li> <li>• 담화 유형<sup>11)</sup></li> <li>• 담화 활동 참여자</li> <li>• 담화 표지<sup>12)</su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자료 예 : 담화, 글, 문학 작품</li> <li>• 담화에 속하는 언어<sup>13)</sup></li> <li>• 담화의 개념과 특성<sup>14)</sup></li> <li>•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li> <li>• 문장과 담화의 이해</li> <li>• 음운-단어-문장-담화</li> <li>• 효과적인 담화 구성</li> <li>• 글의 담화적 특성<sup>15)</sup></li> <li>•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li> </ul> |

2007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 담화에 관한 성취 기준을 다음처럼 크게 제시했다.

- (가) 의사소통 현상, 매체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이해한다.
- (나) 담화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에 관해 2007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 
- 9) 2007 교육과정 학년별 성취 기준에서 담화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은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다. 한편 문장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는 6학년 성취 기준에 두고 있다.
- 10) 효과적인 담화 구성에 관해 두 가지 항목이 이렇게 들어 있다.
- (가) 담화의 표현 원리를 이해하고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 (나) 표준화법과 언어예절에 맞게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 11) 언어 형식이 사회적 차원의 제반 목적과 맺어져서 양식화되고 관례화된 것을 ‘담화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 12) 말과 글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강조, 요약, 단서 드러내기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 표현을 ‘담화 표지’라고 한다.
- 13) 이 부류에 속하는 언어로는 말, 이야기, 대화, 발표 자료, 회의 자료, 인사말, 뉴스, 연설, 토론 등을 명세화 했다.
- 14)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서 지시, 대응, 접속, 응집성, 통일성 등을 언급한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어받은 것이다.
- 15) 독서와 문법 영역에서,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담화의 의도, 목적, 기능,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각 담화를 유형화 해 보고 각 담화가 갖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담화를 유형화 한다는 것은 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넓은 범위의 맥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문법 영역에서 담화 유형이란 어구는 거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대신 오히려 화법 영역에서 담화 유형이 크게 기능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2007 교육과정에서 7개 담화 유형으로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을 택했다. 그리고 2011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담화 유형별로 학년 간 위계를 두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오랜 동안 교육과정에서 담화 용어와 텍스트 용어는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2007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언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텍스트를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텍스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래 인용에서 보듯이, 텍스트를 대신하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다.

“텍스트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화 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발화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담화나 글’, ‘담화·글’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교과부 2007)

여기 인용 자료를 보면, 담화와 텍스트를 분리하는 듯하다. 국어과에서 그동안 담화와 텍스트 용어를 구분하기보다는 ‘담화-텍스트’로 묶어 부르는 쪽이었다. 그동안 마치 한 단어이거나 한 것처럼 함께하던 ‘담화-텍스트’를 2007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두 개의 단어로 떼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담화와 텍스트 사이의 상하위 관계를 적절하게 풀이해 준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만 놓고 본다면, 텍스트를 상위 용어로 두고 담화, 글, 언어 자료, 작품 등으로 하위 개념으로 두는 듯하다. 하지만 텍스트 용어가 잘 안 쓰이게 된 이유는 그것이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외래어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에서 텍스트

용어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텍스트의 상위어 지위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2007 교육과정에서 담화, 글, 언어 자료, 작품 등의 네 가지 용어를 설정함에 의해 텍스트 용어를 밀쳐두게 되었다. 교과서 언어를 담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4분법으로 나누었다. 아래 구획에서처럼 담화 용어를 말하기/듣기 영역에만 한정해 설정하였다.

- 말하기/듣기 : 담화의 수준과 범위
- 읽기/쓰기 : 글의 수준과 범위
- 문법 :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16)
- 문학 : 작품의 수준과 범위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으로서의 담화와 명칭으로서의 담화가 공존하고 있다. 명칭으로서의 담화는 ‘말’을 뜻한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담화는 화(話), 즉 구어체 언어로서의 ‘말’을 (또는 말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말에서 외자로 된 한자어는 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글자로 구성되는 담화를 택한 듯하다. ‘대화’라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대화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개념어로서 담화를 택했다.

담화 개념의 알려진 정의 중 어떤 것에도, 담화는 문어체 언어가 아니라 ‘구어체 언어’(=말라고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둔 정의는 없다시피 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 영역에서 ‘담화=말’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 정의 차원에서 뒷받침 되는 것은 아니다.<sup>17)</sup> 그러다 보니 담화

16) 오히려 문법에서는 담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문법 영역에서 취급하는 교과서 텍스트를 ‘언어 자료’라고 했다. 언어적 맥락에 놓인 언어를 담화라고 하면 담화는 당연히 문법 용어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문장 내 문법 단위는 담화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내 언어 자료가 중심을 이루는 문법에서는 언어 자료 전체를 담화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한편, 문법 단위로서의 담화와 말을 뜻하는 담화가 함께 쓰이고 있다. 화법 영역에서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삼아 담화(談話)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법에서 문장 단위 이상의 언어 자료를 담화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17) 담화·텍스트 사이에 경계점을 상제화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구어체 말을 급하게 담화라고 부르다 보니 글, 문법 예(언어 자료), 작품 등은 담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찾

가 명칭의 차원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명칭으로서의 작용역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sup>18)</sup>

담화는 텍스트보다는 범용성 있는 개념이다.<sup>19)</sup> 주된 이유는 텍스트가 단위, 행위, 관점 등을 묶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담화는 단위, 행위, 관점 등을 돌아가며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담화 용어를 사용함에 의해 더 뚜렷한 언표화 효과가 발생한다. 관점으로서의 담화는 교육과정에는 들어서지 못했지만, 단위로서의 담화와 행위로서의 담화는 교육과정에 입안되었으며 그 중에 특히 행위로서의 담화는 개정 교과서를 통해 상세화 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sup>20)</sup>

담화는 교과서 텍스트의 전체 유형에 걸쳐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거시적 정의로서 담화를 취하려고 한다면, 말에 한정하지 않고 말과 글 모두에 걸쳐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담화라고 지칭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볼 여지는 남아 있다.

---

지 못한 것 같다.

- 18) 익명의 심사위원의 평으로부터 반추해 볼 대목이 있다. 심사위원의 평에서, 우리말 담화(談話)와 영어 discourse는 일 대 일 대응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언급했다. discourse는 문어와 구어를 모두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말 ‘담화’는 글자 화(話)로 인해 구어체 언어를 뜻하는 쪽이 더 어울린다고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 필자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딜레마를 가져오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조어법상의 자구적 감각에 기인해서, 말을 뜻하는 용어로 담화를 수월하게 쓸 수 있지만, 글의 영역에 대해서는 담화를 잘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우리말 조어법상의 감각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담화 용어가 사용되는 환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어과의 개념 생태계에서 담화 용어가 직면하는 딜레마의 시작점이다.
- 19)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부르려면, 여기에 텍스트로는 부족하고 담화라고 부르는 게 맞다. ‘텍스트가 운용되는 방식’을 담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비해, ‘담화가 운용되는 방식’을 텍스트라고 부르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담화는 텍스트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자리할 수 있다. 유럽 대륙권 학풍에 비해 영미권 학풍에서는 담화가 텍스트보다 안정감을 주는 용어로 여기는 연구자들이 많은 편이다.
- 20) 단위로서의 담화란 문법 단위에 있어 문장 이상의 연결체다. 행위로서의 담화란 음성적으로 (또는 비음성적으로)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연결체다.

## 2. 두 가지 측면에서의 담화 개념

문법에서 거론하는 담화 개념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거론하는 담화 개념은 각각 뜻하는 바가 다르다. 이 차이를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구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 절에서 돌아본 정의들 중에 몇 가지를 다시 가져와, 아래처럼 크게 미시적 정의와 거시적 정의로 나누어 대비 관계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 미시적 정의 : 담화는 문장 단위 이상의 언어다. (정의 1)
- 거시적 정의 : 담화는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이다. (정의 6)  
     담화는 맥락에 놓인 언어다. (정의 3)  
     담화는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정의 5)
- 대안적 정의 : 담화는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이다. (정의 9)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담화 개념은 양면성을 지닌다. 미시적 정의뿐만 아니라 거시적 정의와 관련을 맺는다. 미시적 정의는 단위로서의 담화다. 문법교육에서 취급하는 담화는 미시적 정의에 의해 도입되는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거시적 정의는 행위로서의 담화이며 동시에 명칭으로서의 담화다. 아래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담화(1) : 문장 단위 이상의 언어(미시적 정의)
- 담화(2) : (맥락에 놓인)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거시적 정의)

7차 교육과정에서 언명했던 담화 용어는 위의 구분에서 담화(1)에 해당한다. 즉 문법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담화라는 명칭은 거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개념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 국어과 개념 생태계에서 거시적 측면의 담화(2) 개념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까지 상세화 되지는 못했다. 다만 표면적으로 맥락 중심의 교육과정이

등장함에 따라, (언어적 맥락은 접어두고라도)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해서 말하는 행위 자체를 담화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이다.

2007 교육과정 이후로 담화는 문법교육에서 취급하는 ‘단위로서의 담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문법 단위로서의 담화는 언어적 맥락에 놓인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과 아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문법 표현의 적절성을 풀이하려고 해도 상황 맥락이 관여한다. 기능주의자들이 힘주어 강조하는 바대로, 언어의 형식은 기능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발신자의 의도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주목하고 보면, 담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순한 패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체성이나 주관적 가치의 분배와도 연결된다.<sup>21)</sup>

담화 개념의 양분된 정의는 태생적으로 빚어진 것이다. 학문 분야에서 담화 개념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워낙 다양한 것이 담화 개념의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이 공존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sup>22)</sup>

#### IV. 맥락에 놓인 언어로서의 담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맥락 요인들을 분절화해서 드러내 주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맥락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보니까 맥락에 친연성이

21) 제임스 지(James Gee 1996)는 담화 용어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했다. 소문자 담화와 대문자 담화다. 언어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의 측면을 ‘대문자 D’ 담화 효과라고 불렀다. 이에 비해 언어 기능에 대한 상호작용적 맥락의 효과를 ‘소문자 d 담화’라고 불렀다. (대문자 D 담화는 대문자로 표시하는 Discourse의 줄임말이며, 소문자로 시작하는 discourse와 구별되는 용어다.)

22) 담화 개념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언어분석 단위로서의 담화에서부터 비판적 행동 이론이나 리터러시 능력에 관한 도구 개념으로서의 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깊은 언어적 행위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상세화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담화를 정의하기를 ‘맥락에 놓인 언어’라고 할 때, 그러면 맥락이란 무엇인가에 어쩔 수 없이 들어서게 된다. ‘맥락에 놓인 언어’에 직면해 언어로부터 맥락을 풀이하기보다는 맥락으로부터 언어를 풀이하는 방향이 현실성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2007년 개정 이후 맥락 범주를 표면에 내세웠다.<sup>23)</sup> 그런데 2011년 개정에서 태도 범주가 복원되면서 맥락이 다시 지식 요소로 귀속되는 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맥락 중심의 교육과정이 함의하는 바에 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업이 국어교육학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 1. 맥락 중심과 담화

2007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맥락이 작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에 담화와 맥락을 마주 세우는 것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담화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그러나 맥락 중심의 2007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빚어진 파장에 기인해서 교육과정에서 담화 개념은 맥락 개념과 마주쳤다.

담화 개념은 ‘맥락’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맥락상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곧 담화라고 정의하는 한에 있어서, 맥락에 관해 심각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또한 그 자체로 담화에 대한 고려로 들어서는 것이다. 맥락 그 자체는 비록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지만 맥락에 따른 언어사용은 구체 화해 볼 수 있다. 이때 맥락에 놓인 언어라는 것은 곧 담화이므로 맥락과 언어 사이 관계뿐 아니라 맥락과 담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역시 개념 생태계 내의 현안으로 등장한다.

맥락에 관련해 말하지 않더라도 담화에 관해 말할 수는 있다. 역설적

23)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로 사용되는 언어는 맥락에 비추어 정의되고 풀이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기에 비로소 맥락을 범주화하는 말의가 가능했다.

으로 보자면, 맥락이 어려우면 담화도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을 덮어두고 담화로 직접 나가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맥락이 무언지 말하지 못하면, 맥락과 담화를 격리시키지 못하는 순환론에 빠져들 수 있다.

맥락은 텍스트와 함께하는 것이다.<sup>24)</sup> 즉 맥락은 담화(또는 글, 언어자료, 작품)과 함께하는 것이다. 2007 개정에서처럼 맥락을 독립 범주로 세우려 했던 시도는 맥락 요인을 분절화 해서 명세화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자극했다. 그런데 담화를 정의할 때에도 맥락을 고려해서 접근할 수 있다. ‘맥락에 놓인 언어가 담화다.’라고 정의하는 한에서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인과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대응을 말하는 것만으로 일단 담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맥락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범주 수준에서 밝혀내려면 맥락 요인이나 맥락 요소의 명세화에 몰두하게 된다. 교육과정에서 맥락 요인을 상세화하는 일은 결국 담화가 정의되는 토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명세화된 맥락 요인은 텍스트(담화/글/언어자료/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환경으로 수용될 수 있다.

맥락을 말하고 나면 그에 대응하는 담화의 패턴이나 속성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역시 가져볼 수 있다. 마치 (뒤꿈치를 들어 발돋움을 하면서까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듯 하는 입장에서, ‘맥락이란 이런 것’이라고 상세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담화 개념 역시 실체체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역시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맥락 중심의 교육과정이 가져다 준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맥락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에 대해 이미 한 세대 전부터 학자들은 부담스러워 했다. 요즈음에 와서도 그 부담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맥락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딱히 ‘이것만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락에 대한 정의는 언제든지 완전하지 못하다. 언어학자가 책상에 앉아 수행하는

24) 맥락을 이르는 그 유명한 용어 컨텍스트(context)에서 con-은 ‘함께’를 뜻하는 접두사이므로 컨텍스트는 ‘텍스트와 함께’라는 뜻이다.

성찰 끝에 나온 비유로서 맥락은 ‘우산’이 되기도 하고 ‘수거함’이 되기도 했다. 객관화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도구화 하면 쓸모가 있는 잠재태로 맥락을 인식하는 한에 있어 맥락은 예사롭지 않은 개념이다. 지난 시절 언어학에서부터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맥락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던 접근에 관해, 몇 가지로 크게 갈라보면 •맥락 요인을 열거하는 방식 •맥락을 집합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맥락을 대별하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관해 계속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2. 언어학의 맥락 연구<sup>25)</sup>

전통적으로 문장을 단위로 하는 언어 연구에서는 고립된 문장의 문법적 적격성과 이상화 된 언어 사용자를 가정했지만, 담화분석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란 일련의 연결체로 구성된 덩어리로서 맥락 속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행위로서의 언어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지난 시절 생성주의 언어학에 의해 지나친 보편주의와 내성주의에 휩쓸리는 동안에 맥락의 작용태가 부적절하게 도외시되거나 소거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기능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맥락이란 맥락 요인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가장 이른 시기에 맥락 모델을 거론했던 연구자는 하임즈였다. 하임즈(Hymes 1972)는 SPEAKING 모델을 제시함에 의해 맥락 정의를 구체화 하였다. 열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S, P, E, A, K, I, N, G>로 묶여 있다는 뜻이다.<sup>26)</sup>

25) 맥락 요인을 열거하는 방식은 의사소통에 관한 기능주의적 모델로 소개할 부분이다. 이와 달리, 맥락을 집합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언어철학에서 파생된 외연주의 의미론에서 추구했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이 글에서 적은 분량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 4.2절 한 곳에 묶어 두었다.

26) SPEAKING은 어두줄임말이다. 여기에서 S는 Situation(상황), P는 Participants(참여자), E는 Ends(목적), A는 Act Sequence(메시지 내용), K는 Key(어조와 태도), I는 Instrumentalities(말언 형식), N은 Norms(상호작용 표준), G는 Genres(텍스트 유형) 등

언어학에서 맥락이 취급되기 시작한 때는, 언어철학으로부터 언어학적 화용론이 분리되어 나온 1960~1970년대 즈음에서부터다. 그 당시 화용론 연구자 바히렐(Bar-Hillel)이 비유했듯이, 맥락이란 것은 진리조건적 의미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한 통 속에 묶어두는 수거함(wastebasket)이나 마찬가지로 보았다. 일상언어철학에서 고전적 화용론이 분리되어 나온 이후부터, 화용론 분야에서 맥락이란 문법의 주변에 자리하는 언어적 변수들을 묶어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맥락은 발화의 해석에 관련되는 ‘모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현시대 언어학에서 맥락의 특징을 풀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구들은 아주 많다. 맥락이란 변수인지, 구조체인지, 과정인지, 환경인지, 공유물인지, 문화적 토대인지, 논리적 구성물인지, 사회적 실재체인지, 미확정된 가능성인지, 공동근거인지, 선행지식인지, 추상적 표상인지, 믿음이나 가치 체계인지 등에 관해 대단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측면을 포섭한다. 학문 분야의 경계에 따라 맥락을 정의하는 관점은 차별화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맥락 정의가 구체화할수록 학문 분야 사이에 서로 호환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1970년대 고전적 화용론에서 접근했던 것처럼, 맥락이란 (골치 아픈 맥락 요인들을) 한 곳에 쓸어 담아서 모아놓은 커다란 ‘바스켓’인 것처럼 비유했을 때, 여기에 담겨야 할 맥락 요인들로는 발신자, 수신자, 시공간적 배경, 사회적 관습에 대한 지식, 주변 상황에서 전개되는 배경정보에 관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문장 내부에서 작용하는 규칙 뿐 아니라, 문장 구조를 벗어나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나타나는 경향이나 추론되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언어학의 맥락 연구는 철학적 의미론 및 형식의미론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맥락이란 가능성의 변인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언어적 표상으로 묶어두기 위해 기호 논리와 형식주의 체계의 엄밀성을 발전시켰다. 이런 이해의 뿌리는 철학적 의미론

이 형성될 때부터였다. 철학적 의미론에서 맥락을 중시하는 형식주의 이론이 분기되어 나온 배경에서 보자면, 맥락이란 가능세계의 집합들의 집합(a set of sets of possible worlds)이다. 맥락의 외연에 들어서는 가능세계들을 묶어서 집합론적으로 정의함에 의해 세계와의 대응 관계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진리조건과 가능세계의 교섭을 탐색해 나갔다.

실제 세계 내에 자리하는 맥락 요인들을 기호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는 대체물로 나타내 줌에 의해, 실제 세계는 상징의 세계 속으로 가지런하게 정돈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세계를 기호 논리적 대체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연구자들은 논리적 구성물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언어사용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맥락 요인을 경험세계 내에서 확인하려고 할 뿐 기호론적 상징의 세계 내에서 도출된 구성물로 대체하려 하지는 않는다.

### 3. 교육과정의 맥락 구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담화와 글의 수용 및 생산 활동에 있어 맥락이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과정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에 더해 언어적 맥락까지 맥락의 일종에 합류하는 것으로 세어주면 세 가지 종류의 맥락이 구분된다. 이들에 관해 약술해 보겠다.

언어적 맥락이라 함은, 개별 발화가 앞뒤에 등장하는 발화와 맺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언어적 맥락에서 실현되는 연결체는 문장들 간에 연결 관계를 맺는다. 문법 교과서에서 취급하는 단위로서의 담화는 언어적 맥락에 한정한다.

상황 맥락이라 함은, 의사소통의 개별 상황마다 언어사용이 어떻게 조직화 되고 여기에 맥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담화 참여자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대화 상황을 전개하는

지에 관해 상황 맥락 요인을 상세화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 함은, 개별 상황보다 더 넓은 측면에서 언어사용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역사적 가치나 믿음 체계, 사회적 가치와 믿음 체계까지 읽어 들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패턴을 포함한다.

전술한 세 가지 언어적 맥락 중에서, 언어적 맥락에 놓인 언어는 곧 문장 단위 이상의 언어다(미시적 정의). 반면에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는 학교와 교과서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거시적 정의). 2007 교육과정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 두 가지만에 대해 ‘맥락’ 명칭을 부여했다. 언어적 맥락에 대해서는 응집성, 통일성 등으로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두고 굳이 맥락이라고까지 이름 붙이지는 않았다.

영국인 언어학자 할리데이가 취한 관점은 국어과에서 자주 인용되어 왔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언어 형식을 기능과 맺어주는 관점이 기능론자들의 관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할리데이가 제시한 개념들 중에는 (예컨대 필드, 테너, 모드)의 기능 체계처럼) 잦은 혼돈을 안겨주는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상황 맥락’ 또는 ‘사회적 맥락’은 ‘체계와 기능’과 관련해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할리데이는 언어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문법 형식을 상황 맥락과 연결시키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문법적 선택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 맥락 및 사회적 맥락과 주고받는 영향 관계에 주목했다. 할리데이는 언어의 3가지 기능을 구분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3가지 차원의 맥락 변수(필드-테너-모드)를 설정했다.<sup>27)</sup> 필드-테너-모드는 언어 형식이 조절되고 배열되는 관계를 취급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함께함에 의해 문법적 선택이 결국에는 사회적 맥락을 실현시켜 주는 쪽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sup>28)</sup> 정의를 아래처럼 옮겨두었다.

27) 할리데이 기능언어학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능은 개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이다.

28) 예를 들면, 작문의 틀을 학습하기, 일상적 인사말 학습하기 등을 위해 사용하는 텍스트

- 필드(field, 개념 제시하기) :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를 나타낸다. 개념적 선택(명사, 동사, 전치사구 등)으로 표현된다.
- 테너(tenor, 입장 취하기) : 상호작용 참여자들 사이에 상대적인 역할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적 선택(서법, 양태, 억양 등)으로 표현된다.
- 모드(mode, 텍스트 구조화하기) : 언어가 상황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응집성 장치, 연결어, 질 결합 전략, 테마 구조 등으로 표현된다.

할리데이 류의 기능주의에서는 문법 형식의 체계와 기능을 맥락적 차원에서 바라본다. 문법 형식은 언어적 맥락뿐 아니라 상황 맥락 및 사회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필드, 테너, 모드, 이 세 가지 차원이 상황에 따라 (혹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특정하게 제약된 상황에서 결합했을 때 실현되는 담화를 ‘레지스터’(언어사용역)라고 한다. 담화 공동체에서 일정한 레지스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수용 및 생산하는 활동에 맥락이 작용한다. 이를 달리 말해 보자면, 담화 참여자가 목적 지향적 행위를 추구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언어적 선택이 언어 체계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 V. 대안적 정의

### 1.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

이제부터는 앞의 2절에서 도입했던 (정의 9)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해 나가기로 하겠다. 이 정의는 담화 관련 문헌에서 알려진 다른 정의들에

는 일종의 레지스터이며 거기에는 사회적 맥락이 실현되어 있다.

29) 레지스터는 언어의 형태, 기능, 상황의 세 가지 부문의 조합으로 실현된다. 레지스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장르’가 거론된다. 장르는 (레지스터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사회적 목적이 정해진 언어를 (또는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비해, 담화 참여자의 역할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정의 9) 담화는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이다.

이 정의를 약간 고쳐 적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담화는 언어적 선택에 의해 연결되는 연결체다.’ 이 정의를 제약하려면 ‘연결체’부터 제약하기보다는 ‘언어적 선택’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약하는 것이 우선한다. 언어적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은 담화 연구자에게는 아주 원론적 수준의 논제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 가지 말을 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대안적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 어디에서든 빚어진다. 이럴 때 화자는 그 중 어느 한 가지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언어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인지심리적 동기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려는 것은 담화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언어적 선택이라 함은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결정하려는 언어적 행위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적 선택을 통해 담화 단위나 단위 행위의 언어적 겹모습이 갖추어진다. 언어적 선택은 언어 단위뿐 아니라 언어 행위를 함께 묶어주는 메타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결체와 언어적 선택,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로는 제약이 느슨한 개념이지만, 이 둘을 서로 마주 세우고 보면 연결체는 언어적 선택에 의해 빚어지는 잠재태로 자리한다. 행위자가 언어적 선택을 취함에 의해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때 ‘구체적’ 방식이라 함은 양식화되거나 관례화되거나 또는 유형화되는 것을 뜻한다.

언어적 선택은 일종의 ‘상징’이다. 선행하는 상징 형식과 뒤따르는 상징 형식을 연결해 주는 것이 언어적 선택이다. 이를테면 읽고 쓰고 말하는 행위는 언어적 선택이다.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의 연결 관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행위자의 결정이 작용한다. 화행의 예로, 요청-허락, 질문-대답, 사과-승인 등이 있다. 이런 행위는 언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대상으로서,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덩이말로 구성되어 그 구조와 의미 내용이 산출되고 수용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문장 단위의 형식화된 규칙 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어사용에 관여하는 세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자는 언어적 자원에 의존해서 행위자가 경험하는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언어적 자원을 사용하려면 구조적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언어적 자원’이란 문장, 발화, 텍스트, 스토리 등으로 나타나며 모국어의 문법 구조, 문화적 지식 등을 참조해서 언어적 자원의 선택이 정해진다. 표현의 효율성이나 적절성에 걸쳐 언어적 선택이 일어나며, 문법 형식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언어적 선택이 일어난다.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뜻한다. 더 넓게 해석하면, 교과서 텍스트 자료가 수용되어 읽히는 데에 관련된 수준과 범위를 나타낸다. 교과서로부터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은 언어적 선택에 의해 연결체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체를 접하면서 교과서 학습자가 경험적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은 언어적 선택에 의해 맥락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를 상위 개념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연문화 하지는 않았다. 만약 텍스트를 대체하는 명칭으로 담화를 둘 것 같으면 말 뿐만 아니라, 글, 언어 자료, 작품 등은 모두 담화 연결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맥락의 조정을 거치지 않는 원천적 언어를 묶어서 ‘텍스트’라고 부를지라도 맥락을 거쳐 수용되는 글, 언어 자료, 작품 등을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는 ‘담화’ 정도가 고려될 수 있다.

언어적 선택은 담화 유형을 결정해 준다. 2007 교육과정 화법 영역에서 도입한 ‘담화 유형’ 용어는 상당히 쓸모 있는 용어이다. 레지스터(언어 사용역)가 특정 담화 공동체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유형화되고 양식화된 연결체로 확립되고 나면 이것을 ‘장르’라고 한다. 담화 유형이란 용어에

비견될 만한 외래 용어로는 레지스터 혹은 장르가 있다(그 둘 중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둘 모두가 담화 유형과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담화 유형’ 용어는 외래어 용어를 대체해 주어서 좋을 뿐만 아니라 레지스터와 장르의 까다로운 구별점을 해명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서 좋다.<sup>31)</sup>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기능주의자 할리데이는 문법적 선택이 사회적 맥락을 실현시킨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sup>32)</sup> 필드-테너-모드의 조합은 가장 구어적 언어에서부터 가장 문어적 언어 사이의 스펙트럼이다. 장르로서의 언어는 담화 공동체 안팎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집적되었으며, 행위자의 언어적 선택에 의해 장르 언어가 현실 장면 내에서 재현된다.

## 2. 행위로서의 언어적 선택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언어적 선택이다. 이런 선택이 일어날 때 행위자의 ‘의도’가 작용하는 지에 따라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측면으로, 언어적 선택은 행위자의 적극적, 주관적 선택에 의해 일어난다. 언어적 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자가 적극적이거나 주도적인 인식과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언어적 선택이다. 언어적 선택은 이전

30) 장르란 기능주의자의 견해로는 언어 형식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실현시켜 주는 환경에 해당한다. Paltridge(2006 : 84)는 정의하기를, 장르는 사람들이 담화를 사용하면서 ‘무언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31) 담화 유형은 구어체 중심의 언어이지만 레지스터(언어사용역)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며 장르와도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우회하기 위해, 담화 유형이 레지스터(언어사용역)와 장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32) 할리데이(Halliday 1994)의 필드-테너-모드 개념은 조심스럽게 읽어 들일 필요가 있다. 용어 자체가 일상적 말뜻으로부터 직접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보니 기억하기에 부담스러운 용어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개념은 국어와 개념 생태계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할리데이가 언급한 context of situation은 교육과정의 상황 맥락과 똑같지는 않다. 문법적 선택에 의해 표현되는 레지스터 텍스트는 ‘사회적 맥락’을 실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가리켜 할리데이는 context of situation이라고 불렀다.

부터 자리하던 사회적 맥락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가령 독서를 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적 선택 행위다.

둘째 측면으로, 언어적 선택은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선택으로도 일어난다. 절차적으로 확립되어 있거나 이미 양식화 되어 있는 문서 형식을 처리할 때가 그렇고 학교 내에서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임을 따를 때가 그러하다. 가장 구어적 표현은 (예컨대 일상적 인사말에서 심지어 욕설에 이르기까지도) 무심코 나타나며 비교적 문어적 형식을 갖춘 글이라고 해도 장르 차원에서 이미 부여되어 있는 언어 형식을 비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다.

언어적 선택은 맥락을 대신할 수 있는 개념어이다. 이 대안적 정의를 다른 정의와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 ‘맥락에 놓인 언어’라는 정의에 비교해 보면, 맥락 = 언어적 선택, 언어 = 연결체가 된다. 언어적 선택은 언어적 맥락의 실현을 수반한다. 언어적 맥락은 텍스트 ‘내에서’ 또는 ‘사이에서’ 작용한다. 이때 언어적 맥락의 실현은 언어 형식이며 여기에는 상황 맥락이나 사회적 맥락도 읽어 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맥락은 그 자체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이나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언어적 선택은 텍스트들 사이에서도 역시 일어난다. 상호텍스트는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들을 말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언어적 맥락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상호텍스트가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점도 중요한 관심사다. 텍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이 개인 행위자의 언어적 선택에 의해 개인적 가치 체계 내로 수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언어적 맥락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텍스트들이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언어적 맥락화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구성하고 연결체가 구성되는 것은 담화 행위자의 언어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적 맥락화는 그 이면에 사회적 맥락을 깔고 있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심어진 이야기를 텍스트 경험자가 읽고 그 의미를 내면화 하는 것은 언어적 맥락화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어디선가 들 어본 듯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찾아오기도 한다. 예컨대, 한(恨)은 한국인

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속에 우리네 살림살이의 팍팍함과 고단함이 사회적 맥락으로 담겨 있다. 심청가를 듣다 보면 심 봉사가 눈도 못 뜨는 신세로 힘들고 애달프게 살아가는 사연이 이어진다. ‘한’이라는 한국 문화 특유의 보편적 정서가 심 봉사 이야기의 언어적 맥락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청전」의 독자는 언어적 맥락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처럼 독자가 작품을 읽고 맥락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내는 행위는 ‘언어적 선택’이다.

### 3. 언어적 선택이 일어나는 곳

언어적 선택은 말과 글의 연결체에서 일어나고, 상황에서 일어나고, 사회문화적 가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서도 일어난다. 언어적 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자신이 세상에 대해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언어적 형식으로 연결체가 나타난다. 예컨대 화행은 세상에 대한 연결체이며 대화의 순서구조, 스토리, 문단, 이야기 등도 연결체다.

언어적 선택은 담화의 구조화를 통해 실현된다. 담화가 구조화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담화를 생산하고 해석할 때, 담화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화된 경향’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일반화 된 경향이란 언어적 선택의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이다. 언어적 선택은 어떤 종류의 담화 현상과 연결되는가에 관해 아래처럼 네 가지를 구체해 보았다.

- (1) 형식구조 : 응집성(cohesion), 문법 형식, 어휘 선택, 언어적 추론<sup>33)</sup>

33) 언어적 추론이 일어날 때, 맥락은 일반화 된 배경으로서뿐만 아니라 개별 화자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이때 언어적 추론은 개별 화자의 구체적 관심사나 기대감에 의해 촉발된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된 맥락은 잠재적 포용성은 강하지만 행위자의 표현과 이해에 대해 뚜렷하게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취합

- (2) 의미구조 : 통일성(coherence),<sup>34)</sup> 주제-평언(theme-rheme), 배경정보, 프레임, 언어적 추론
- (3) 순서구조 : 인접쌍 발화, 발언 차례, 내러티브 연결체, 스키마, 구어체 대화의 상호작용에서 ‘재현되는 패턴’
- (4) 상호텍스트 구조 : 전언, 고쳐 쓰기, 패러디, 학습 언어, 매체 언어 등

형식구조 및 의미구조에 관해 부연해 보겠다. 형식구조에 대한 언어적 선택은 문법적 선택이다. 맥락을 고려하는 문법이란, 문법적 선택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맥락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할리데이 류의 ‘체계와 기능’의 기전이 여기에 작용한다.<sup>35)</sup> 문장 단위를 넘어 문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결체라는 것은, 형식구조와 의미구조에 걸쳐 연결된 연결체(*connected sequence*)다. 형식구조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 맥락은 문장 경계를 넘나드는 문장들의 덩어리 연결체로 늘어난다. 문법교육에서 담화 개념을 수용한 것은 문장 단위 이상에서 단락, 이야기, 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적 선택의 범위를 문장 경계 이상의 연결체에 이르기까지 넓게 가져간 것이다.<sup>36)</sup>

---

한 맥락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언어 행위를 선택하며, 이때 추론은 언어적 선택이 작용하는 맥락의 연장(*a stretch of context*)을 드러내기 위해 작용한다. 이 논제를 두고 그라이스 화용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김종현(2005)이 있다.

- 34) 개정 교육과정에서 코히전, 코히어런스에 대한 번역 용어로 응집성, 통일성을 택한 바 있다. 번역 용어 문제는 학계에서 정리되지는 않았다. 김종현(2012)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돈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그 중에서 코히어런스에 대해 통일성보다는 ‘일관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35) 체계기능언어학(SFL)에서 언어는 의미 체계인데, 여기에서 ‘체계’란 ‘입력 조건에 대한 선택항목들의 집합’이다(Halliday 1978). 여기에 소요되는 선택의 다발을 실행함에 의해 언어가 작용한다. 문법적 선택의 예를 들면, 주제, 서법, 양태, 전이성 등의 문장 구성 요소들이 있다. SFL에서 언어 사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사용자가 의미를 만들기 위해 언어적 선택을 어떻게 시행하고 배분하는가에 대해 비중을 두어 취급한다.
- 36) 익명의 심사위원은 이 대안적 정의를 보다 상세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화, 문장 등과 어떤 포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대안적 정의는 (도구적 개념을 추가해서 제약을 부과하지 않아도 이미) 문장이나 발화를 당연히 포섭한다. 문장 내부 음운-단어-문장 층위에서 계열적/통합적 관계에 의한 기호 연결체는 당연히 담화 자료의 일종이다. 문장의 짜임은 일종의 연결체이다. 하나의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물론

다음으로, 순서구조에 관해 언급해 보겠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적 행위나 패턴이 서로 간에 선후 관계, 조건화 관계 등으로 연결되면 이것을 두고 순서구조라고 한다. 이런 측면을 중시하는 방법론을 ‘대화분석’이라고 한다.<sup>37)</sup> 주어진 발화에서 언어적 형식의 선택과 해석은 발화의 선형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테면, 현재 주목하는 발화가 상호작용 속에서 어디에 자리하는가, 대화의 시작과 종결은 어떻게 하는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하는가 등이다. 대화분석 방법론자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발언 차례에 관한 일반적 패턴에 따라 구어체 말이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언 차례 교체에 관한 언어적 단서로서 문법 단위, 억양 변화, 침묵, 시선, 몸동작, 음량, 어조 등으로 표시되는 언어적 선택이 작용한다.<sup>38)</sup>

또한 순서구조 자원은 대화적 자원 및 담화 유형의 레지스터 자원을 포함한다. 말을 이어가는 중에, 유의미한 단서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적 기준을 체득하는 것이다.<sup>39)</sup>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문법과 어휘 뿐 아니라 단락과 논의를 구성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에 적응하는 것이며 초대, 사과, 거절 등을 일상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언어적 선택의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의 구획으로, 상호텍스트 구조에 관해 언급해 보겠다.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언어적 선택은 상호텍스트 구조를 불러들인다. 상호텍스트 자체는 언어적 맥락을

---

담화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담화 용어는 문장보다 넓은 범위의 덩어리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즉,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는 문장이나 발화를 물론 포함하며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언어적 단위나 행위에 이르기까지 포괄한다.

37) 대화분석에 관해 최근에 발간된 개설서로는 Sidnell(2010)을 권한다.

38) 대화분석 방법론을 따라, 발언 차례에 대한 언어적 선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면 발언 차례가 다음 화자에게로 넘어간다.
- (2)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든지 다음 화자로 나서면서 발언 차례를 얻을 수 있다.
- (3)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발언 차례를 가져가지 않으면 현재 화자는 발언을 지속할 수 있다.

39) Gumperz(1982)의 지적에 의하면, 화행의 실효를 드러냄에 의해 화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회적 전제들도 신호화 시킨다.

구성하는 것에 비해, 상호텍스트로 생성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담화 참여자가 취하는 행위는 사회적 맥락에 필연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텍스트들은 시간에 의해 연결된다.<sup>40)</sup> 말하기와 글쓰기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선행 텍스트를 반복하거나 변용함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담화의 관습에 대해 얼마간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영역에서는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담화적 특성에는 텍스트들 사이 연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컨대 서사 텍스트를 읽고 수용하는 데 상호텍스트 구조가 개입한다. 판소리 담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서편제」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송화가 주막집에서 동호의 북장단에 맞추어 심 봉사 부녀 상봉 장면을 부른다. 이 대목에서 앞 못 보는 송화는 심 봉사 눈을 뜨게 했다. 그건 소리의 힘을 통해서였다. 서편제 이야기를 수용하는 독자는 ‘소리 찾는 사람들’의 맥락화를 통해 ‘소리가 지닌 힘’의 의미를 구성한다. 서편제에서 ‘길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구조를 언어적 맥락으로 접하면서 ‘근대화에 밀려난 사람들’에 관한 상황 맥락 및 사회적 맥락 사이의 접변을 독자는 읽어 들일 수 있다. 이 한 편의 작품에 들어있는 이야기 구조는 맥락을 통해서 독자에게 수용되고 예술적 의미로 각인될 수 있다. 독자는 상호텍스트가 제공해 준 보편적 정서에 비추어 작품의 이야기 구조를 수용해서 자신의 가치 체계 내로 수용해 의미를 구성한다.

말을 분별력 있게 하고, 글을 글답게 적는 것은 교육적으로 항구적인 성취 기준이다. 가장 구어적 표현에서부터 가장 문어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레지스터 및 장르 수준의 연결체가 부과되고 이것을 선택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메타 담화의 표현을 배우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교육

40) 선행하는 텍스트에 바탕을 두고 맥락에 따라 텍스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Fairclough (2003)는 텍스트 체인(chains of texts)이라고 불렀다. 텍스트는 앞선 시기의 텍스트에 의존하며, 어떤 텍스트이든시간에 그에 앞서는 텍스트들로부터 울림의 효과를 얻는다.

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말과 글로 나타내는 세계 속에 자기 존재를 어느 정도로 드러낼지 혹은 드러내지 않을지를 선택해서 메타 담화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일을 통해 행위로서의 담화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자기인식을 설정해 나갈 수 있다.

## VI. 맺음말

국어과의 개념 생태계에서 담화 개념은 언어의 구조적 형식과 언어적 행위의 양쪽 모두에서 현실화 된다. 기존에 알려진 담화의 다양한 정의들에 견주어 볼 때, 국어과에서 취하는 담화 용어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 대안적 정의 [담화는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이다]를 내세웠다.

대안적 정의는 국어과에서 취급하는 담화 개념의 특성과 담화 유형 그리고 교과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에 이르기까지 포섭력이 있으며 ‘맥락’에 비견할 만큼의 체계 구성을 잠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언어적 선택’이라 함은 언어 단위뿐 아니라 언어 행위를 함께 묶어서 배열해 주는 메타 개념이다. 언어적 선택이 일어나는 구조체를 형식구조, 의미구조, 순서구조, 상호텍스트 등으로 구분해 보았다. 이것이 각각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대응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맥락에 놓인 언어를 담화라고 할 때, 담화 개념은 맥락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작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언어적 선택에 놓인 연결체], 이 정의에 의해 [맥락에 놓인 언어]를 대체하고 보면 ‘맥락’을 대신해서 ‘언어적 선택’으로부터, ‘언어’를 대신해서 ‘연결체’로부터 개념적 토대를 탐색할 수 있다.

명칭으로서의 담화는 텍스트, 이야기, 글, 작품, 언어 자료 등과 대체될 때가 있다. 이처럼 담화와 환원할 수 있는 명칭은 여러 가지로 잠재한다. 이 글에서는 담화의 정의를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로 환원하려

고 하였다. 여기에서 선택이란 언어적 맥락뿐 아니라 상황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과도 관계를 맺는다. 담화 용어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의 교과서 텍스트를 나타내는 뜻으로 쓸 수는 없다. 너무 지나친 확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어체와 구어체, 양 측면에 걸쳐 맥락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공동체 언어로서의 레지스터 및 장르를 포용하는 데까지는 담화 용어가 가장 적절한 개념이자 명칭이다. 이런 구석이 국어과의 개념 생태계 내에서 담화 용어를 필요로 하는 환경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자의 적극적, 주관적 행위는 물론이고 비주관적, 장르 지향적 행위까지도 ‘언어적 선택’에 의해 언어적 실재체로 실현된다. 이런 측면을 반영하면서 담화 개념의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외연을 세심하게 좁혀 나가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이런 목표는 이 논문의 한계점이면서 동시에 지향점이기도 하다. 국어과의 영역들 사이에서 담화 용어가 일정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적 정의를 고려해서 이해의 발판을 딛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본 논문은 2012. 6. 30. 투고되었으며, 2012. 7.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종현(2005), The Pragmatic Inference Processes of Quantity Information in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언어』 30권 1호, 27~72, 한국언어학회.
- 김종현(2009), 『언어의 이해』, 태학사.
- 김종현(2012), 문법 교과서 이야기 단원에 대하여, 『화법연구』 20호, 271~303, 한국화법학회.
- 교과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7-79호.
- 교과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 최미숙 외 7인(2012),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Brown G. and G.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eron, D.(2001), *Working with Spoken Discourse*, London : Sage Publications.
- Fairclough, N.(2003), *Analysing Discourse :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 Routledge.
- Foucault, M.(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 Pantheon.
- Gee, James. P.(1996),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 Ideology in Discourses* (2nd edition), London : Taylor & Francis.
- Gumperz, J.(1982), *Discourse Strategies : Studies in 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 Halliday, M. A. 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nd edition)*, London : Edward Arnold.
- Hewings, A. and M. Hewings(2005), *Grammar and Context :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and New York : Academic Press.
- Hymes, D.(1972),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life,” In : J. J. Gumperz and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New York : Holt, Reinhart and Winston, 35-71.
- Martin, J. R. and D. Rose.(2003), *Working with Discourse : Meaning Beyond the Clause*, London : Continuum.
- Paltridge, B.(2006), *Discourse Analysis : An Introduction*, London : Continuum.
- Schiffrin, D.(1994), *Approaches to Discourse*, Malden and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 Schleppegrell, M.(2004), *The Language of Schooling : A Functional Linguistics Perspectives*,

Mahwah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idnell, J.(2010), *Conversation Analysis : An Introduction*, Malden : Wiley-Blackwell.

Stubbs, M.(1983), *Discourse Analysi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wales, J. M.(1990), *Genre Analysis :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ofitt, R.(2005), *Conversation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 A Comparative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Sage.

## &lt;초록&gt;

##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담화 개념의 위상

김종현

이 글은 국어과 영역 간에 담화 개념을 통합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논거를 파악하기 위해 담화의 개념적 토대를 논증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개념으로서의 담화와 명칭으로서의 담화가 함께 쓰이다 보니 담화의 작용역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국어과 각 영역에 따라 담화가 뜻하는 바를 분절화 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났다. 개념과 명칭,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과정에서 담화 용어의 쓰임새에 관해 이해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담화의 다양한 정의들에 견주어 볼 때, 국어과에서 취하는 담화 용어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양단된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 대안적 정의(담화는 언어적 선택에 의한 연결체이다)를 내세웠다. 대안적 정의는 충분하게 제약되어 완결된 정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대안적 정의는 도구적 개념의 효과를 갖는다. 국어과에서 취급하는 담화 개념의 특성과 담화 유형 그리고 교과서 언어의 수준과 범위에 이르기까지 포섭력이 있으며 ‘맥락’에 비견할 만큼의 체계 구성을 잠재적으로 보유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개념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각별하게 주목한 키워드는 ‘언어적 선택’이다. ‘언어적 선택’이라 함은 언어 단위뿐 아니라 언어 행위를 함께 묶어주는 메타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행위자는 언어적 선택을 한다. 여기에서 언어적 선택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 걸쳐 행위자의 선택을 통해 담화 행위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담화 유형을 사용하는 일이 일어난다. 언어적 선택이 일어나는 언어적 구조체를 형식구조, 의미구조, 순서구조, 상호텍스트 등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교육과정을 상세화하면서 담화 개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대로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체는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대응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파악했다.

【핵심어】 담화, 국어과 교육과정, 언어적 선택, 연결체, 형식구조, 의미구조, 순서구조, 상호텍스트, 언어사용, 맥락, 텍스트

## &lt;Abstract&gt;

## On the Notion ‘Discourse’ for Korean Language Curriculum

Kim, Jong-hyun

This paper explores how the notion ‘discourse’ is available with respect to contemporary Korean Education Curriculum. Among a variety of definitions of discourse, each definition is relevant in its own right, but none of them is complete for the Curriculum. In confrontation with the concept ecology within the sub-disciplines of the Korean Education, this paper launches an alternative definition(Discourse is a sequence by linguistic selection; which is a sequence connected by linguistic selection) and suggests that the alternative definition is indeed instrumental for keeping up with both micro- and macro- aspects of discourse phenomena. It is further noted that the notion ‘discourse’ must be crossed with the context-driven approach of the 2007 Curriculum. In order to refine the connectivity of discourse, a general meta concept has been employed under the rubric of ‘linguistic selection.’ The resources which live on linguistic selection have been called upon in terms of four kinds of sequence, i.e. form structure, content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and inter-texts. The linguistic selection by discourse participants is to showcase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discourse sequence connectivity. In this regard, discourse can be characterized as being a sequence connected by the patterns of linguistic selection.

**[Key words]** discours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linguistic selection, sequence of language, form structure, content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inter-texts, context